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

성경말씀: 요14:8-11

요즘 성화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다. 지난 2주에 걸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특성: 인격적, 영적, 거룩하신 분, 자존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본다.

저는 모태 신앙, 60년 동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어 왔다.

성경을 번역하였다. 20년 동안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한계를 크게 느낀다.

핵심: 구원받아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설명의 외침보다는 “하나님을 한 번 보여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나도 한 번 보면 더 잘 설교할 것 같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 >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에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간청한다.

요한복음의 빌립(14:8-11)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3년 반 동안 따라다님

공생애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당할 일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

당할 일: 십자가 처형

하실 일: 부활 승천, 그리고 그 뒤에 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 1-3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자 도마가 답한다(5). 주님의 대답(6).

7절 설명, 너희는 아버지를 알며 그분을 보았다(7).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언제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인가?”

순진한 빌립이 나선다(8). 바로 이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 세상의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모두 믿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보여 주시는가? 그런데 이것은 빌립만 구한 것이 아니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율법과 대언자, 변화산상에 나타남

모세: 이집트에서 태어남, 40년 동안 이집트 문물을 배움, 자기 힘으로 구출하려다가 도망감

40년 뒤 양 떼를 치다가 호렙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음성, 그 뒤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 홍해 기적, 광야로 들어가 매일 만나의 기적, 시내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40일을 같이 지냄, 십계명을 받은 뒤 내려와 보니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 돌 판들을 내던져서 부숨

출33장: 하나님: 백성을 용서하지만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모세의 요청: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33:18)

주님의 대답(20). 그리고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뒷모습만 보여 주심

모세는 말 그대로 매일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는 사람,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만나, 반석의 물

그런데 백성들로 인해, 자기의 일로 인해 지쳤다.

그래서 공적으로 모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말고 개인적인 영광을 보고 싶었다.

즉 이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고 싶었다. I AM THAT I AM.

딤후6:16

즉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일에 함께하심을 보여 주는 표적(출16:7)

요한복음의 빌립도 지금 모세와 비슷한 상황, 3년 반 동안 메시아로 알고 섬겨 온 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는다고 한다. 청천벽력, 물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나? 안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신랑으로 새 언약의 정혼을 하였으니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공허하게 들림. 그러니까 모두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함(1). 그래서 드디어 순진한 빌립의 입을 통해 “아버지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이루어지면 다 믿겠습니다.”

신구약 성도들의 공통 특징: 극도의 어려움,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한 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는 증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증거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을 보는 방법

주님의 대답(9),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9절: 영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아버지를 보면 죽는다(출33:20).

이사야서 6장: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스랍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네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의 의미(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를 믿는 것이다(요10:30).

이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 예수님의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

예수님의 대답: 기독교의 핵심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이 나온다.

기독교의 핵심: 재물, 명예, 학식, 사람의 영광, 큰 교회, 성경 번역자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사귀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구원, 여기에서 성화, 여기에서 이 세상의 행복, 영원에서의 행복이 나온다.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해 보자.

직업 인터뷰 하는 사람: 대상자를 불러서 만난다. 자기 소개서, 인터뷰, 출생, 학교, 부모, 전공, 성적, 취미, 친구 관계

말 그대로 인터뷰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다 안다.

우리의 질문: 이 사람은 인터뷰 대상자를 알고 있습니까? 보았습니까?

네와 아니오의 대답이 가능하다.

네: 정보 면에서, 아니오: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 왜? 사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정보를 아는 것과 사귀어서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 안다. 성경에 대해 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개인적인 사침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 3년 반 동안 나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귀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뷰 하는 사람이 그 대상자를 진짜로 알려면 사귀어야 한다. 호감이 가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자주 만난다. 이야기한다. 알아간다. 이것이 남녀 관계라면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 그러면 결혼하게 된다. soul mate가 되는 것이다. Room mate가 아니라.

명훈이와 세아, 청년부 생활, 상대방에 대한 정보, 호감이 감, 자주 만남, 결혼

결혼이 끝이 아니다. 매일 상대방을 더 많이 알아간다.

‘더 많이 알아간다’의 의미: 그것은 투명해진다는 말이다. 내 모든 것을 상대방이 안다. 모든 것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다. 비자금,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등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잘 아는 것이다. “...에 대해 아는 것”에서 “...을 아는 것”으로 발전함
즉 정보에서 관계로 바뀌어야 정말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이라는 정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결국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지식 구원 No!, 관계 교제(요1:12), 요17:3을 보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보

정보가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신다. 이런 정보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

일반 계시(우주 만물, 우리의 양심),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

특별 계시: 기적들, 한때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일하셨다.

이런 계시들의 문제: 객관성이 없다.

드디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통해 일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말로 볼 수 있는 책을 준비하셨다.

모두가 보고 읽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그 안에 하나님, 영원 접 과거, 현 시대, 다가올 영원, 죄, 구원, 사탄 마귀와 천사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다 들어 있다. 글로 들어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

심지어 하나님의 최대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계룡산 등 찾지 말라!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실 수 있다.

믿는 가정, 어려움, 병, 친구, 노방 전도 전도지 한 장 등,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야지

계속해서 감정을 추구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 큰 불행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요구한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보았다. 극적인 회심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도구인 바울에게만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

바울은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고후5:7,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Faith와 Sight는 반대말이다.

Sight는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는 것이다.

그것을 Insight라고 말한다. 사전 통찰 혹은 통찰력,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것

인생을 거는 것이다. 결혼과 같다. 상대방에게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과 더 투명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을 기록하였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징이 무언인가? 그들은 다 믿음으로 하였다. 보지 않는 것으로, 통찰력으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갔다.

아브라함 11:8, 사라 11, 그들이 한 일 13,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모세 27,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같이 하면서 살아가며 견디어 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이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같이 하면서 견디다가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

총리가 된다. 목사의 성추행, 왜 그럴까? 정보는 있는데 관계는 없기에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구원과 성화 의심, 하나님과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교인들에게

옮겨간 교회에서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원한다.

결론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 히11장, 요14, 17장을 읽고 요셉의 기사를 읽으라.

아는 것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렘9:23-24을 늘 기억하자.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